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7.11.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베트남 원전 수주 유력했는데...탈원전 탓 대상국서
배제돼”(11.10, 문화)

1. 기사내용

- 이창건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“베트남이 신규원전의 대상국으로 한국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우리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배제했다”고 언급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베트남은 전력수요 감소, 재정부담, 안전성 우려 등의 사유로 러시아·일본이 추진 중이던 닌투언 프로젝트(2기)를 중단
‘16.11월 국회에서 최종 결정**했고,

* 닌투언 프로젝트 국회승인('09년) → 러시아는 닌투언 지역 제1원전(2기/'28년 준공목표)을, 일본은 닌투언 제2원전(2기/'29년 준공목표)을 각각 '10년, '11년에 수주

** 관련 외신보도: '16.11.22, “Vietnam abandons plan for first nuclear power plants”(로이터)

- 이에 따라 한-베트남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 중이었던 중부 원전('30년 준공목표) 사업도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임

- 따라서 이는 '17.5월에 출범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김진 과장 (044-203-5330)
이동혁 주무관 (044-203-5335)